

중외제약 이경하 사장 중외메디칼 대표 겸임

중외제약은 이경하 대표이사 사장이 11월1일부로 중외메디칼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다고 10월31일 발표했다.

이경하 사장은 중외메디칼 사장을 겸임하게 돼 제약과 의료 등 기존사업을 그룹차원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등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도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.

이경하 사장은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미국 드레이크대학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1986년 중외제약에 입사한 이래 마케팅, 연구개발(R&D), 해외영업, 기획관리 업무를 두루 거쳐 2001년 1월 중외제약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.

이후 중외와 대유신약 등 3사의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며 중외메디칼 대표 겸임으로 모두 4사를 총괄하게 됐다.

<화학저널 2005/11/01>